더불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이웃

"아이들이 폭력의 상처 지웠으면 해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살피는 북부서 최길식 경장

또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여중생 등 가정·학교폭력 피해자인 세 자매를 제 자식처럼 보살피는 이가 있다.

광주북부경찰 여성청소년과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인 최길식(31) 경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3월 초 A(14·광주 모 중 2년)양이 학교폭력 신고 전화인 '117'에 신고를 자주하자 A양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다.

그는 담당 교사와 상담 과정에서 A양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병으로 쓰러진 뒤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인 A양 언니(15)와 여동생(12)이 있는 편부 가정으로 기초수급대상자 세대라는 것도 알게 됐다. 최 경장은 A양과 언니가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두 자매를 북부경찰서와 MOU를 체결한 이룸심리발달센터에 의뢰해 심리검사 등을 받게 했다.

검사 결과, 언니는 선택적 함구성 증상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 경장은 지난 5월 초부터 매주 한 차례씩 A양의 언니와 함께 이룸 심리발달센터를 다니고 있다.

처음에 말도 걸지 않던 A양의 언니는 심리 치료가 계속되면서 "이룸심리발달센터 가는 날은 소풍가는 날처럼 기분이 좋다", "동생들이 청소를 안 해요" 등 최 경장에게 사소한 말까지 건넬 정도로 많이 호전됐다.

최 경장은 또 지병으로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하지 못한 A양에게 장애등급 신청을 해주는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 A양의 집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등급 신청을 말리는 아버지를 설득한 뒤 막노동을 하는 A양의 아버지를 대신해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최 경장은 A양의 집에 들어선 순간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방안에 거미줄이 쳐 있고 곳곳에 벽지와 장판이 찢어져 있었으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방안이 각종 물품 등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최 경장은 주변의 도움을 요청한 끝에 실내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한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 도배와 장판을 새로 교체해줬다. 작업엔 최 경장을 비롯한 도배·장판시공 자원봉사자와 무등복지관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누는 기쁨, 수확의 기쁨 못지않네요"

무공해 깻잎 무료 개방 장성 김광수 씨

"제가 정성껏 키운 무공해 깻잎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짜입니다. 돈을 받고 팔면 이윤은 늘릴 수 있겠지만 나눌 때 얻는 행복한 기분은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장성군 동화면에서 깻잎을 재배하고 있는 김광수(60)씨는 올해도 훈훈한 인심으로 깻잎 밭을 무료로 개방한다. 김씨는 지난 6일부터 자신의 깻잎 밭을 손님들에게 열었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밭 주인 눈치 볼 필요 없이 운동화에 편한 복장으로 들어가 원하는 만큼 깻잎을 딸 수 있다. 밭에 들어가는 인원을 제한하거나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차를 이용했을 경우 밭 인근에 주차도 가능하다.

김씨는 지난해 깨 수확을 앞두고 1650㎡(500평) 면적의 밭을 10여 일간 개방했다. 8월 중순부터 개방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일주일 정도 일찍 손님을 맞는다. 그렇지만 올해 재배량이 줄고 날씨의 영향으로 개방 시기도 8일 정도로 줄일 계획이라 밭을 찾는 이들은 서둘러야 한다. 밭 개방은 광복절인 15일쯤 끝날 예정이다. 이미 장성은 물론 광주까지 입소문이 전해져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 처음으로 깻잎 밭을 무료로 개방했을 때는 40여 명이 무공해 깻잎을 '얻어'갔다.

밭에 다녀갔던 이들 중 몇 명은 무공해 깻잎에 '반해' 몇 달 전부터 개방 시기를 문의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광주에서 3명이 깻잎을 따러 다녀갔다. 지난해에도 방문했던 이들이었다.

올해는 유례없이 긴 장마로 상추, 깻잎 등 신선식품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깨를 재배할 때 잎은 자주 속아줘야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저 혼자 힘들게 따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따면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약도 쓰지 않고 정성껏 키운 깻잎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깻잎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씨는 나눔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나눔이란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좀 더 필요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고 했다. 방문객들에게는 원하는대로 깻잎을 가져가도 좋지만 다음 사람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초등생 수영교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정공섭)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생들의 체력증진을 목표로 수영특강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지하 2층 수영장에서 진행한다.

/양세열 기자 hot@kwangju.co.kr

"고향 고흥 종갓집 할매들의 삶 그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 송은일 '매구 할매' 펴내

4년 전 소설가 송은일(여·49)은 고향인 고흥에서 노인정을 찾았다. 어머니께서 동네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셨기 때문이다.

문을 열자 100여 명의 할머니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대부분 구순이 넘은 고령이었지만 그녀가 들어서자 하나같이 손을 잡으며 반겼다. 할머니들은 반가운 마음에 그녀의 희미한 기억 속에 있던 옛일을 쏟아내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송 작가는 이때의 장면을 되짚으며 소설 '매구 할매'를 썼다.

매구는 지상에서 1000년 묵은 여우가 변해서 된다는 전설의 짐승이다. 100살까지 세고 그다음부터는 세지 않는 매구 할매를 중심으로 '계성재'로 이름 붙인 종갓집 사람들의 삶을 그려나간다.

송 작가는 "할머니들을 한꺼번에 봤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시골 동네의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나이 듦'이라는 것이 쇠약함과 추함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삶을 완성해가는 의미로 다가왔어요. 매구 할매의 존재는 그런 의미죠. 매구는 구미호 같은 간사함이나 영악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어머니 같은 인물을 뜻합니다."

소설은 작가가 고향인 장흥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삼은 첫 작품이다. 작가의 집도 종가여서 따로 취재할 것 없이 '몸에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들'을 뽑아내 썼다.

작가는 책머리 '작가의 말'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나이 들어 현재에 이르렀지만 자신들의 삶에서는 주인공인 사람들"이라고 썼다.

그녀는 "이 양반들이 가시면 이 마을이 어쩌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었고 한 시대가 가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서 "계시는 동안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편 송은일작가는 1995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꿈꾸는 실낙원'으로 등단했고 2005년 제 1회 광주일보 문학상을 수상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 동구 공직자 청렴 실천 다짐대회

광주시 동구(구청장 노희용)는 6일 오전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청렴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동구 제공〉

조선대 총학, 불우학우에 라식수술 이용권

조선대 총학생회(회장 김국민)는 협력병원 제휴를 계기로 밝은광주안과(대표원장 김재봉)로부터 라식수술이용권을 기증받아, 서재홍 총장이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수술 이용권을 전달했다. 〈조선대 제공〉

광주·전남 교사 854명 직무교육

광주교대, 23일까지 식생활 지도 등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이정선·사진)는 교사들의 자기계발과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광주·전남지역 교사 854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광주교대 교육연수원은 학교현장의 능동적인 변화를 목표로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해 전남도교육청, 전남연수원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한달 일정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교육, 식생활 지도, 스마트교육용 앱 제작과정, 창의인성 전문가로 거듭나기 등 총 15개 과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日 와세다·스즈오카대 초청 문화체험

박대환 조선대 대외협력처장(독일어과·사진)은 7일 대학 중앙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일본 자매대학 학생 초청 '2013-하계 ISS 프로그램' 개회식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와세다·스즈오카대학 학생들이 3주간 한국어 수업을 비롯 문화체험 등을 통해 양국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사

◆ 광양시

◇5급 승진(의결) ▲총무과 김순표 ▲세정과 서복심 ▲지역경제과 이정희 ▲사회복지과 공승기 ▲도시과 오태영 ▲도로과 황형구

적십자사, 우산동 나눔재활의학과에 나눔명패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최상준)는 6일 광주 북구 우산동의 나눔재활의학과 의원을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후원하는 박병권 원장에게 적십자 희망풍차 희망나눔명패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고규석(코트라 전문위원)·정광숙씨 아들 영일군 정영준(해양도시가스 사장)·한미옥씨 딸 승민양=10일(토) 오후 1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지하 1층 하모니볼룸.

▲배귀대(경주배씨 광주종친회 부회장·재광 영암향우회 사무국장)·장길님씨 장남 용선군 정용채·김숙희씨 장녀 혜린양=10일(토) 오후 2시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황의순(법무부 범죄예방 협의회 회장)·이정자씨 아들 민군 박병각((주)엠아이텍 대표이사)·한화정씨 딸 주현양=10일(토) 오후 5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종친회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회장 강원구) 운영위원회의 개최=7일(수) 오전 11시 50분 종회사무실(회관 3층) 062-228-336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시민 학생의 '인성함양'과 '성찰과 미래'를 위한 철학박사의 인문학 강좌 "우리 꿈 우리가 키우자"='논어'(매주 토요일 오후 4시)·'대학'(매주 월요일 오후 7시)(5월~12월) 광주YMCA 2층(수준무관·누구나 수강가능 무료) 010-3625-5433.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우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모집

▲CAP(Child Assault Prevention·아동폭력예방)교육 전문가=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아동특화프로그램인 CAP(Child Assault Prevention·아동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할 역량있는 일반인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062-385-1391.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야학 교사·학생=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장구, 징, 꽹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장애인 체육 동호인=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 후 신청 062-384-5544.

▲놀이패 '신명' 단원=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부음

▲정원상씨 별세 언진·홍민씨 부친상=발인 8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이 완씨 별세 병화·승주·길주·선화씨 부친상=발인 7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안태형 님(남/87세)
子/子婦 : 한규문/조원숙, 규빈/김영미, 민/이은숙
女/壻 : 안영희/조영원, 정희/노문현, 진희/조흥수
• 호 실 : 201호 • 발 인 : 8월 8일
• 장 지 : 보성복내 • 연락처 : 227-4381

故 박옥채 님(여/91세)
子/子婦 : 김영산/이춘자, 영춘/조경옥, 영요/박정애, 영익/김영미
女/壻 : 김복진/문상철, 정월, 영미
• 호 실 : 301호 • 발 인 : 8월 7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2

故임치현 님(남/75세)
子/子婦 : 임병호/정성희
孫 : 임묵식, 두식
• 호 실 : 101호 • 발 인 : 8월 7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故최건민 님(남/44세)
不 : 최순열
兄弟 : 최건수, 건희
• 호 실 : 102호 • 발 인 : 8월 7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6

孝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